

특허청, 전기차 전용 부품 분야 지원을 위한 현장 소통 나서

- (주)한온시스템 방문 및 지식재산 간담회 개최 -

특허청은 지난 5. 13.(월) 세계적(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주)한온시스템(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전기차 전용 부품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청취하여 고객맞춤형 고품질 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주요정책, 특허심사경향을 소개하였고, 한온시스템은 현장의 지식재산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전기차 전용 부품 개발동향 등을 소개하였다.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특허청 심사관들이 전기차 전용 부품기술에 대하여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고, 연구개발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함으로써 해당 기술 분야의 심사품질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가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붙임1: 특허청-한온시스템 현장소통 간담회 계획

붙임2: 특허청-한온시스템 현장소통 간담회 사진

담당 부서	전기통신심사국 전기심사과	책임자	과 장	제승호 (042-481-5702)
		담당자	사무관	김기호 (042-481-5712)
			사무관	김성곤 (042-481-5152)

□ 개 요

- 일 시: '24. 5. 13.(월) 14:00~16:00
- 장 소: (주)한온시스템 본사 R&D센터(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소재)
- 참석자: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 제승호 전기심사과장 및 심사관 등 15명

□ 세부 일정

시간	내 용	장 소
14:00-14:10	사전 환담 (국장, 전기과장)	부사장 집무실
14:10-14:20	회사 및 연구소 소개 (한온시스템 예동희 팀장)	대 회의실
14:20-14:30	특허청 정책 소개 (곽태근 사무관)	
14:30-15:30	쇼룸 관람, 연구실 투어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	한온시스템 쇼룸
15:30-15:45	사진 촬영	연구소 입구



<내용>

특허청은 지난 5. 13.(월) 글로벌 전기차 전용 부품 기업인 (주)한온시스템 (대전시 대덕구)을 방문하여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설명>

사진 : 특허청 임영희 전기통신심사국장(앞줄 왼쪽에서 6번째)이 현장소통 간담회를 진행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